



[뉴스] K-코로나 백신 눈앞 SK바이오사이언스 투약군 99% 면역형성 02



Economy

코스피	2969.27 (0.00)	코스닥	1001.35 (0.00)
금리 (미국 3년)	1.944 (-0.096)	환율 (원-달러)	1185.20 (+2.60) (5일)

‘요소수 품귀’ 산업 전반 섧다운 눈앞 정부 비현실 대책에 소비자 혼란 가중

국내 요소수, 이달 말 소진 정부 긴급회의·특사단 파견 불법 개조차 단속 연기 등 당장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된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뉴스1

요소수 사태가 국내 경제를 강타하기 '일보직전'이지만, 정부는 여전히 그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묘안을 짜내는 분위기지만, 비현실적인 조치만 이어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요소수 재고는 늦어도 이달 말 동이 날 전망이다.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해 사실상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국내 요소수 업체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 사재기 등에 재고가 더 빨리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요소수는 요소(암모니아)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엔진 가동에 필수적이기는 않지만, 환경 오염을 막

기 위해 법적으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요소 공급을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이미 10년여 전에 생산을 중단했다.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중국에서 물량을 해결해왔지만, 최근 호주와의 대립으로 석탄 공급을 받지 못한 중국에서 요소 공급 축소에 수출을 틀어막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장 물류 대란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국내 화물차 대부분이 디

젤 차량이기 때문.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도록 강제된다. 화물트럭이 멈추면 택배는 물론이고 원자재 운송도 어려워지면서 국내 산업이 멈춰버릴 우려도 있다.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하는 건설과 농업 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개인들은 해외 직구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섰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고 배송 기간이 길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해외 요소수가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탓에 자칫 고

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디젤 엔진이 가장 널리 쓰이는 유럽에서도 요소수 부족 현상이 시작하면서 조만간 해외 구매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 정부도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난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측에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 국내 요소수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살기 좋은,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개포동 레미안블레스티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기획입니다.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신문에 소개된 30여 개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와 조경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심사방식 : 개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수상명 :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등
- ◆수상작 발표 및 소개 : 11월 25일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입원·사망률 89% 낮춰

머크社 치료제보다 2배 효과 내달 말 FDA 허가 기대감 ↑



화이자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률을 최대 9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사용 승인을 받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화이자지는 지난 5일 현재 개발 중인 약의 형태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성인들의 입원이나 사망 확률을 89% 줄였다고 발표했다. 화이자지는 빠른 시일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여러 국가에 허가 신청을 낼 계획이다.

머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머크는 몰누피라비르가 중증화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머크는 지난 4일 영국 보건당국으로부터 세계 첫 사용 허가를 획득했다. 다음 달 말 F

DA의 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리토나비르라고 불리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투여된다. 하루에 두 번 세 알씩 복용하는 방식이다. 화이자에 따르면 중증 위험 인자를 최소 한가지 이상 가지고 경증 또는 중증의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121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환자들 중 0.8%가 입원했고 치료 후 28일까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반면, 위약 그룹의 입원율은 7%이고 사망자는 7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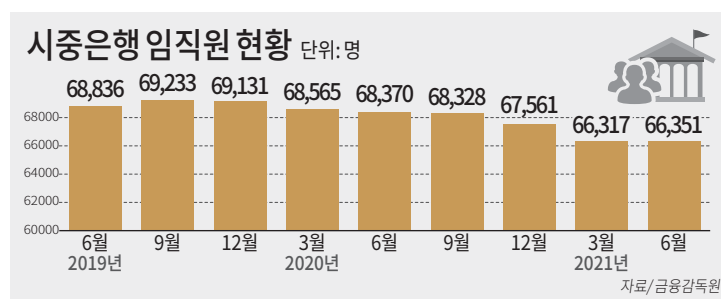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에는 10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위약 그룹의 입원율이 6.7%에 비해, 화이자 치료제를 복용한 그룹의 입원율은 1%에 그쳤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뱅크 40대 '인생 2막' 연다... 희망퇴직 급증

은행 정규직 임직원 급감 퇴직 조건 개선 등 영향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점포수와 필수인력을 줄이고 있어서다. 하루라도 젊을 때 '인생 2막'을 준비하려는 40대 직원이 늘었고, 내년에도 희망퇴직자가 쏟아질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임직원 수는 6만63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19명 줄었다.

특히 은행들의 임직원 수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에서 대부분 감소했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이뤄지

는 희망퇴직을 통해 임직원수가 크게 줄었다.

◆시중은행, 희망퇴직자 최대 2배 늘어

KB국민은행은 올 1월 30일 자를 기준으로 80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2018년 407명, 2019년 613명, 2020년 462명이었다. 신한은행도 올해 두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각각 1월 220명, 7월 130명이 퇴사했다. 희망

퇴직자 수는 2018년(700여명) 이후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도 지난 1월 말 468명이 퇴사해 2020년(326명)과 비교해 1년 사이 140명 이상 증가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지난해 500명이 희망퇴직했다. SC제일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지난 2015년 962명, 2019년 154명, 2020년 29명으로 매년 감소해왔다. 2015년 이후 6년만

에 가장 많은 직원이 희망퇴직을 선택한 셈이다.

◆"퇴직조건 좋아서"...인생 2막 40대 ↑

뱅크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건이 매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올 희망퇴직자의 범위를 1965년생부터 1973년까지로 신청대상 범위를 40대까지 확대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3~35개월치 급여와 함께 학자금(학기당 350만원·최대 8학기) 또는 지난해보다 많은 재취업자 지원금(최대 3400만원)을 지급했다. 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퇴직 1년 이후 재고용도 가능하게 했다.

<3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대통령 "V4와 연대 노력... 다음 정부서도 기조 이어져야"
- ▲윤석열 대권 질려면... 2030잡기·정책역량 강화·외연확장 /사진 뉴스1

- ▲이재명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 청년층에 우선배정 검토"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서 "코로나19로 위태" 우려... 초안 공개



- ▲홍준표 "내 역할 종료... 비리의혹 대선에 참여 안 할 것"
-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수사 중'... 시험대 오른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 뉴스1